

문화재 환수에 '관·민' 나섰다

7월 27일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 시행, 민간 환수재단 설립

외국에 흩어져 있는 한국 문화재의 환수에 대한 불교계와 시민들의 참여가 본격화된다.

국외소재 민간기구인 국외소재문화재단이 7월 27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맞아 출범한다. 외교적 마찰 등의 우려로 정부가 직접 나서기 힘든 일을 맡아서 할 기구로 이사진에는 김의정 前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 불교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현재 정권이 마련된 상태로 이사장 선임 등 임원진 구성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서 불법 반출된 것은 되찾아오고, 적법하게 빠져나간 것은 지금 있는 곳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국외소재문화재단은 민간 소장 국외문화재의 실태와 유통 경로를 조사하고, 가치 있는 국외문화재는 사들이거나 기증을 받고 적법하게 반출되어 환수 대상이 아닌 문화재는 현지에서 활용하는 일을 한다.

지금까지 소재가 파악된 국외문화재는 20개국 14만 9,126점이다. 일본에 있는 것이 6만 6,295점으로 가장 많다. 이중 40% 가량이 불교문화재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 문화재찾기 시민위원

회(위원장 김의정)도 서울시로부터 2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국외 문화재 찾기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등 힘을 보태기로 했다.

시민위는 일본 공내청,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 흩어져 있는 조선왕실의례, 지난 5월 가사(아키라) 일본 중의원과 의담회를 통해 밝혀진 조선 제왕 투구(도교박물관 소장), 1920년 반출된 것으로 보이는 송파산대놀이 탈(일본 와세다대 소장), 미국 워싱턴미술관에 있는 금제 라마탑형 사리구 등의 환수에 나선다.

시민위는 먼저 오는 12월까지 외국으로 반출된 우리 문화재를 파악하고 환수하기 위한 노력을 담은 다큐멘터리 '국외반출 문화재 찾기 대장정-한국(還國)'을 제작하기로 했다. 다큐멘터리는 4회 이상의 국외 현지촬영을 진행하는 한편, 장소와 주제에 맞는 출연진과 강사도 섭외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지역에서 국외 반출 문화재 사진전, 동영상과 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한 특별 강연, 퍼포먼스 캠페인 등을 펼칠 계획이다.

이밖에 이달 시작되는 중고등학생 여름

방학을 활용해 문화유산아카데미도 열기로 했다. 중학생 대상 강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달 23일, 30일, 8월 6일 열고 고등학생은 25일, 8월 11일, 8월 6일 진행할 예정이다. 청소년 대상 독후감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학생에게는 기업의 협찬을 받아 국외 탐방 등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불교계에서는 보스턴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금제라마탑형 사리구 환수에 주목하고 있다. 이밖에 일본 오구라 호텔에 있는 이전 이전 오층석탑과 평양 울리사지 석탑, 중국 여순박물관에 있는 금강산 장안사 범종 등이 있다.

해문 스님을 포함한 해외반출 환수를 위한 대표단은 2011년 미국을 방문해 미국 소재 문화재를 조사해 보스턴미술관 측과 사리구 반환을 논의했다. 당시 미국 방문에서는 회암사 '석가삼존도'도 뉴욕 버크 컬렉션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65년 문정왕후가 회암사에 시주한 불화 40점 중 6점 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만 1점이 있다. 현재 일본에 4점, 미국 버크 컬렉션에 1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양주 회암사 박물관측은 7월 27일 개관에 맞춰 미국 버크 컬렉션의 석가삼존도 임대 전시를 추진 중에 있다. 양주 회암사



미국에서 지난해 최초 공개된 회암사 석가삼존도

박물관은 양주사가 127억원을 들여 준비 중인 박물관으로 10월 경 정식 개관이다.

문화재 제자리찾기 사무총장 해문 스님은 "과연 가능할까 했던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실의례의 한국이 지속적인 노력에 의해 현실이 된 것처럼 국외 소재 문화재의 환수에 대한 불자와 국민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우즈베키스탄서 초기 불교사원 발견

국립문화재청, 카라테파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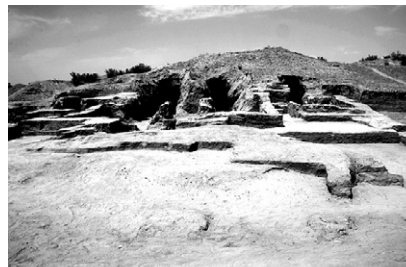
인도 북쪽 중앙아시아 지역인 카라테파 유적에서 1~3세기 초기 불교사원 유적이 발견됐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영환)는 7월 19일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 회의실에서 열린 '2012년 우즈베키스탄 카라테파 불교사원 발굴조사 성과 설명회'에서 카라테파 유적 조사에서 초기 불교사원이 발견됐다고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2011년부터 우즈베키스탄학술원 예술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우즈베키스탄 카라테파 유적에서 진행한 것이다. 조사에서는 쿠산시대(1~3세기)에 해당하는 석굴(예배당), 지상 건물지(승원), 탑으로 이루어진 초기 불교사원의 기람(사원 건물)의 배치)가 확인됐다. 카라테파 유적은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중앙아시아를 거쳐 중국과 한국으로 이어지는 불교의 전파 과정을 보여주는 유적이다. 이번 발굴로 초기 불교사원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카라테파 유적은 우즈베키스탄 남동쪽 끝 아프가니스탄과의 경계 지점인 테르메즈 지방에 위치하고 있다.

이 일대는 쿠산시대 불교문화의 중심지로 고대 도시유적과 초기 불교유적이



우즈베키스탄 카라테파유적의 불교사원 흔적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최근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유적 복원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번에 발굴된 탑은 평면형태가 원형이며, 가장자리를 따라 꽃병과 물병으로 사용했던 양이부호(兩耳附壺: 양쪽에 손잡이가 달린 항아리)가 일직선격을 두고 배치되어 있다. 이는 부처님을 상징하는 기념물로 알려진 스투파의 상징적 의미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 양이부호 1점에서는 바트리아어를 카라테파 지역의 그리스 문자로 쓴 묵서(墨書)가 확인됐다. 묵서는 일반적으로 공양이나 봉헌과 관련된 내용이지만 대부분 깨진 조각에서 발견돼 전체 내용을 알기 어려웠다. 전체 문장이 확인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판독 결과가 주목된다.

노덕현 기자

해인사 팔만대장경 중복판 조사한다

문화재청·해인사, 동아대 석당학술원과 재조사, 추가 국보지정 가능

국보 제32호 재조대장경(해인사 팔만대장경)의 진위여부가 재조사 된다. 문화재청과 해인사, 동아대 석당학술원은 7월 16일 '해인사 대장경판 중복판 조사 용역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문화재청이 시행하는 이번 조사 사업에서 석당학술원이 연구 용역을 맡았다. 사업 기간은 8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성과 발표회 및 학술세미나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대장경판 중복판 조사 사업은 문화재청과 해인사 팔만대장경연구원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해인사 대장경 디지털영상화 및 기초자료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진행하면서 조사된 판 수가 1962년 조사를 통해 국보로 지정된 재조대장경 판 수인 8만 1258판보다 108판이 많은 데 따른 것이다. 중복된 판에는 1900년대 조적 총독부가 16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 경

판은 국보로 지정된 것도 있었다.

동아대는 중복판들에 대한 스캔 작업을 통해 비교 분석하고 진위여부를 판별한다. 중복 경판의 보안 시기에 대한 연구는 물론 중복 경판의 훼손 정도에 대한 조사도 실시한다. 동아대는 국내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팔만대장경 인경본 완질을 소장하고 있다.

또 오키니 대학에 소장된 재조대장경 인경본과 동아대학교 소장 인경본 등의 비교 연구를 통해 중복판의 가치에 대한 다각도의 연구조사를 벌인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국보로 지정된 재조대장경(해인사 팔만대장경)의 경판수가 현재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사업에는 경판 관련 전문가인 역사·서지학자, 금속성분 및 제작기법을 분석할 보존과학자, 목판의 판각기법 및 목질 등에 대한 수리복원 전문가 등 3개 영역에



동아대 석당학술원과 해인사는 16일 연구협약을 맺었다.

12명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연구 책임자는 최영호 석당학술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이며, 공동연구자는 이관성 한국전통문화대학 교수와 도훈호 순천향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한편, 팔만대장경으로도 불리는 재조대장경은 1236년(고려 고종 23)에 착수하여 1251년(고종 38)에 완성한 것이다. 총 1,501종 6,708권, 경판 수는 81,258 장이다. 강화도 대장경판당(大藏經板堂)에 보관하다가 1398년(태조 7)에 가야산 해인사로 옮겨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덕현 기자

제14회 진각논문 대상 시상식

진각종 교육원(원장 경정 정사)은 7월 17일 총인원 내 교육원강실에서 제14회 진각논문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상자는 △진각종교학 해답(이경택 의밀심인당 주교) 정사 △불교일반 분야 서현희(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강사), 안환기(서울대학교 종교학 박사과정 수료), 권순범(동국대학교 불교학과 박사과정), 배경아(일본 류코쿠대학교 불교학 박사), 양경인(동국대학교 인도철학 박사과정 수료) △밀교일반분야 조금자(위덕대학교 불교문화 박사과정 수료) 등 7명이다.

이날 시상식에서 교육원장 경정 정사는 인사말을 통해 "진각논문대상을 만든 목적은 불교발전과 밀교학자 및 불교학자들의 학문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불교학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논문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죽은 내시 남편 위해 만든 지장보살상 발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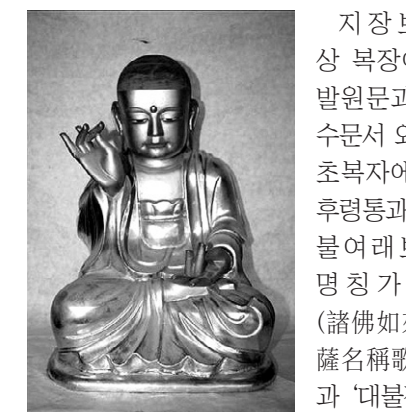
최선일 박사, 속초 보광사 보살상 복장 분석

조선 후기 목조 불상에서 죽은 내시 남편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부인의 조성기가 발견돼 눈길을 끈다.

문화재청 문화재감정위원 최선일 박사는 '미술사학연구' 제274호에 기고한 '속초 보광사(普光寺) 목조지장보살좌상과 조각승(彫刻僧) 초안(草安)' 논문에서 "환관을 위한 불상 조성 사례는 처음"이라며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보광사 아미타불 협시보살 중 하나인 지장보살상은 통나무 하나로 만든 일목식(一木式) 불상으로, 높이 46cm에 무릎 너비 30.5cm다.

최 박사는 "2010년 9월 조사한 지장보살상 복장에서 발견된 발원문과 중수문서를 분석한 결과 한씨(韓氏)라는 여인이 죽은 남편 송록대부 나업(羅業)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자 조각승 초안(草安)이라는 승려에게 만들게 했다. 이어 효종 5년(1654) 8월 29일 금강산 안양암(安養庵)에 안치했다"고 말했다.



속초 보광사 지장보살상

경) 등이 발견됐다.

최 박사는 끝으로 "이번 연구를 통해 인균(1615-1655)·삼인(1628-1659)·초안(1654-1659)으로 이어지는 임진왜란 직후 조선시대 조각승 계보를 재확인했으며, 임란 직후 사찰 중건과 더불어 지장전에 봉안하는 지장보살이 제작됐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since 1973
2013년 불교달력 특별가격

연향이 머무는 곳 (大/6절) 1,100 원

3,000부 이상 @ 200부이상 @1,300원

규격 : 30.5cm x 31cm

반야심경 (小/12절) 800 원

3,000부 이상 @ 200부이상 @1,000원

규격 : 25.8cm x 26.5cm

사찰에서 선호하는 기본 사이즈입니다.

종이영가옷 / 예수재함 / 종이신발

B형-남 정가 1,300원	B형-여 정가 1,000원	동남 정가 1,000원	동녀 정가 1,000원
수자영가옷 정가 900원	영가천도다리 정가 1,000원	금강경탑다리 정가 250원	금강호신경 1000조 @160원
예수재함A (50개 1박스) 할인가 50,000 (50개 이상)	예수재함B (50개 1박스) 할인가 60,000 (50개 이상)	종이신발(남/여) 1켤레 100개이상 할인가 1,300원 정가 1,600원	인쇄점은 영가옷/위패 1000개 @250원

동진기획 · 붓다쇼핑

TEL. (051) 515-2988, 555-1087, 508-9377 ~ 8 FAX. (051) 508-0101

☎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 (051) 515-2988, 555-1087, 508-9377 ~ 8 FAX. (051) 508-0101

인터넷전화. 070-7425-0518 H.P 011-554-2988, 011-879-0889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드라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 서적, 사경지, 연등, 염주, 향, 양초, 다포, 4.8용품, 백중용품]